

2025년 12월 18일(목요일) 시청자위원회

참석

회사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안인수 위원, 김종은 위원, 박경숙 위원,
박소정 위원, 천현진 위원, 박배연 위원, 조애숙 위원

위원장

순천대학교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여수MBC는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여 사옥 이전 사업 잘 마무리하길 기대하겠음.

대표이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사옥 이전 경과보고 간단히 드리겠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진척을 시켜 MBC애니 웹툰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 클러스터에 참여하기로 했음. 사업단 구성하여 사무실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며, 유통 IP개발, 부가사업 등을 통한 사업화 추진 예정임.

위원장

이번에는 주요 부서별로 지난 회기 업무 설명과 다음 회기 프로그램 설명 듣도록 하겠음.

콘텐츠센터장

정규 프로그램 및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속, 여수 관광특집 제작하여 방송, 여름철부터 해온 한국의 둘레길 8편 제작하여 방송하였음. 공동 제작사들과 함께 유통에 힘을 써서 해외 판매도 계획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1년 동안의 프로그램, 보도 비평하는 프로그램 제작. 작년에 첫 론칭, 두 번째 제작 18일 저녁 9시 방송 예정. 방송 영상 AI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막바지 검수 작업 중.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지속. 12월 말 검증 후 1, 2월말 심사 후 데이터 구축 예정. 한국형 데이터 부족하여 한국형 AI만들기 위해 학습 데이터 제공하는 사업임.

1월 기획단계의 시간을 가질 예정. 정규 및 특집 개편에 대응하여 코너, 신설 아이템 구성원들과 기획회의 가질 예정.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입주 대비하여 기획콘텐츠 발굴 예정.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여 검토하고 진행하겠음.

섬박람회 관련 콘텐츠 제작 당부 관련하여 금오도 둘레길, 특집 다큐멘터리 확장하여 제작중, 겨울, 내년 봄까지 촬영 구성하여 8월에 다큐멘터리 방송할 예정. 관광 특집, 어바웃 우리 동네 통해 적극 반영 중. 여수 산단 위기 대응 관련 지속적인 관심 필요 관련하여 라디오 전망대 코너에서 대응,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 필요 관련, 라디오전망대 뉴스브리핑, 토론을 통해 취재 및 방송 중, 지역 정가 분위기 다루는 프로그램 방송하였음. 따뜻한 소식 발굴 필요 관련, 고흥 아이들, 어르신 어울려진 합창단 취재하여 방송.

보도센터장

2025년 분야별 10대뉴스, 섬박람회, 석유화학 산단위기 지속하여 방송,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고흥 제2 우주센터 유치 시동, 지역의 전세매물 부족 문제, 보도특집으로 순천시 미래 유산,

석유 화학 위기 특집 제작하여 방송하였음.

새해는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음. 지방선거 공천률 내용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말씀하셨던 자치단체 시민과 전문가가 원하는 자치단체장 상 등을 방송할 예정이며 세계 섬박람회가 9월 달에 열리는데 준비 상황 보도하겠음. 여수가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선정이 됐는데 전망 과제, 순천시 그린바리오 에너지 사업 추진 상황 보도하겠음. 내년에 보도 특집 섬 박람회 관련 준비 중. 섬 사랑 그리고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음.

저번 달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추운 연말 따뜻한 기사 필요하다고 해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및 희망나눔모금 성금기부 지속적으로 방송중이며 조애숙 위원님 말씀하신 지주택 관련 후속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보도했음.

방송사업센터장

여수아카데미 방송인 이금희 초청, 청소년 봉사상 시상, 항만공사 주최 희망나눔 연말콘서트 금, 토 양일간 진행 예정(트로트 클라쓰, 박성언의 음악식당). 크리스마스 발레공연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겠음. 뮤지컬 미세스다웃파이어 1월 진행 예정. 섬진강 꽃길 마라톤 여수MBC 주관하여 진행 준비, 2026년도 입찰사업 잘 대응하겠음.

박성주 위원

둘레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화된 부분을 알려주길 바람.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함.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 제작 필요. 여수산단 위기 특집프로그램 관련하여 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여수 산단에 어떠한 화학 특화 산업이 필요한 지 더 자세히 취재하여 다뤄주길 바람.

박병현 위원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음. 화학위기 대응관련하여 도출된 결론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여수 시민의 어려운 삶을 소개하는 인터뷰 중 식당 종업원, 울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노동자가 등 필터링이 필요.

순천대학교 통합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학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

조애숙 위원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뤄주면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탄소중립에 대하여서도 다뤄주길 바람

미평동 여성문화센터 명칭에 대하여서도 다뤄주길 바람. 남성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안인수 위원

셋아웃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했으나, 한 눈에 들어오게 표현한 것으로 좋게 봤음. 나열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했던 것이 다른 특집과 차별점으로 보임. 여수 산단 위기로 인해 지역 상인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준 것은 지역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줘서 좋았음. 정부의 정책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음.

위원장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감 부족한 발언에 대하여 언론으로서 한 번 다룰 필요가 있음.

보도센터장

대학 통합 및 교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다루긴 했으나, 지역민의 의견을 듣지 못했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김종은 위원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위기'임. 위기라는 것이 기회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생각.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함. 여수산단 특집과 관련하여, 일본과 독일 사례가 있었으나, 중국사례, 중동에서 건설중인 COTC에 대한 사례도 취재해주길 바람. 여수MBC의 순천 이전과 관련하여 마찰없이 잘 마무리 되길 기대함.

박경숙 위원

애니메이션 웹툰 사업과 관련하여, 그림책 인구가 많이 늘고 있음. 그림책이 주는 메시지가 쉽고 간결하여 타인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음. 그림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상실, 이별, 교통 관련하여 서로 바라보는 시각 등을 다루주는 프로그램에 기획 되길 바람.

박소정 위원

라디오 전망대 특집 수상 축하드림. 12월3일 섬마을여행사 돌산특집, 섬박람회 왜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아 아쉬웠음. 뉴스앤이슈 전문가 초빙하여 내용이 더 테일하게 이뤄지길 바람. 여수MBC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 순천으로 이전하려고 하나, 여수MBC가 콘텐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트로트 등 밖에 없음. 여수MBC가 생각하는 콘텐츠, 지역의 방송국으로서 그리는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여수산단 위기 특집 관련하여,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 지역의 어떤 문제로 오는가가 중요함. 위기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는 연쇄적인 문제 발생.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또, 전남 동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 인지 넓게 문제의식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 아쉬움, 연속으로 특집으로 다루주길 바람. 과제를 던져준 좋은 특집이라고 생각함.

라디오 전망대 관련 토론 정치한판 패널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가져가길 바람. 정치한판의 수준을 올리길 바람.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여수MBC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 관련하여 잘 정리하여 전해주길 바람.

천현진 위원

지역 관광의 특집이나 지역 위기, 석유 화학 이슈, 섬박람회 관련 이슈 등이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잘 보도 된 것으로 생각함. 산단, 화학산업의 위기가 체감이 되지 않았으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 구나 알았음. 지속적인 보도를 기대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관련하여 지역 보도들이 균형있게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 지역 연말 분위기 전달 관련하여, 지역 주요 현안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박배연 위원

사회복지 단체 위원회에 참석하는 중, 여수 산단 위기로 인해 세수 부족, 사회 복지 단체 예산 감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느꼈음. 소외계층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필요

콘텐츠센터장

박소정 위원님께서 라디오 전망대에 의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린다. 저희는 공영방송에서 패널 볼 때도 여야를 맞춰야 되고 이런 어려움 있음. 또 지역 정서에 너무 안 맞는 어떤 패널들도 있어서 어디까지 배제를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존재함.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여러 섭외 가능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이런 정치 양당 또 내년 지방선거구도 있고 하니까 좋은 어떤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한번 숙고해서 하겠음.